

# 이주열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강연  
“통화정책 여력 아껴둬야  
재정여력 노르웨이 이어 2위  
재정·구조개혁정책 더 중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대가 치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통화정책의 향후 방향과 관련, 정책의 여력을 아껴둬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그는 “(한국은)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재고 또 재고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더디고 느려 보일지는 모르지만 한은은 성장도 보고 금융안정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성장, 금융안정, 기대효과, 예상된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슴밖에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구조개혁 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하



리우올림픽 방송중계망 구축 KT는 27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안정적인 중계 방송을 위해 한국과 브라질 간 국제방송중계망을 구축하고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T 네트워크부문 오성목 부사장이 현지에 있는 KT 직원들을 화상전화로 격려하고 있다.

가리, “통화정책은 만능 통치약이 아니다. “통화정책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한다”고 인용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정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2014년 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재정여력이 주요국 중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최대치와 현 국가 채무 수준과의 차이를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여력 순위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고용 증가 등에 재정이 역할을 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비효율성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재정·통화정책의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재정·통화 정책만 시행하다 보니 여력이 고갈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 기초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저성

장·저물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개혁이란 것은 어느 나라든 당연히 어렵지만 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 ▲과잉규제 ▲저출산·인구고령화 ▲가계·기업 부채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강연에는 김광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시

## ‘드론’ 비행안전정보 어플 서비스 개시

드론 전용 비행구역 7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정식 서비스를 28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식버전은 지난해 말 베타 버전 출시 및 사용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매뉴얼, 정보설정 등 UI·기능 수정과 드론 비행에 유용한 자료 제공 등 전반적 개선이 이뤄졌다. 6개월간 베타버전을 시범 운영한 결과 월평균 약 3000명이 신규 가입(누적 다운로드 1만8531회)했고, 월평균 접속횟수가 약 16%(누적 접속 18만3985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을 통해 ▲공역 정보 조회 ▲비행 장소 사전 검색 ▲비행에 정지 지역 정보 검색 ▲드론의 제한

설정에 따른 비행승인 필요 여부 ▲비행허가 소관기관(연락처) 및 현재위치, 유의사항 ▲해당 지역의 온·습도, 풍속, 일출·일몰시각, 지구자기장 정보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어플 정식버전 출시와 더불어 드론 전용 비행구역 7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신규 지역인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등을 포함해 모두 29개소가 됐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추가는 전문 드론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검토, 현장실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다음달 18일 발표된다. /뉴스시

## 한중 FTA 발효에 상장사 중국진출 활발

작년 상장지배사 1327곳 중속회사 1만327곳 해외 자회사 61.3% 상위 100사 해외중속회사 아시아 49.7%... 중국 아시아의 53%

중국 등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상장지배회사 1327곳의 중속회사는 1만327곳으로 외국에 소재지를 둔 경우가 61.3%로 국내(38.7%)보다 많았다. 해외 소재 자회사는 전년(5757곳) 대비 573곳 늘어 증가율이 10%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해외 중속회사 수가 각각 397곳, 176곳 증가했다. 연결총자산 상위 100사의 해외중속회사는 아시아에 49.7%, 미주에 27.2%가 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등으로 중국에 자리 잡은 회사가 845곳으로 1년 전보다 73곳 늘었다. 이는 아시아 소재 자회사의 절반(53%)을 웃도는 수치다.

연결총자산 기준 상위 10개사가 지배하는 중속회사 수는 1356곳으로 전체 중속회사의 13.1%를 차지했다. 연결총자산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242조1795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175조2574억원, 현대자동차 165조3679억원, 한화 145조6217억원, SK 96조6338억원, 포스코 80조408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LG전자, 두산 등도 상위그룹에 속했다. 중속회사수는 한화가 290곳으로 가장 많았다. SK, CJ, 포스코, 삼성전자, 두산, LG전자, 삼성물산, CJ제일제당,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등 12곳이 100개 이상의 중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회사는 2003곳으로 전체의 19.4%다. /뉴스시

## SK텔레콤 T맵 무료 개방 1주일만에 43만명 가입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을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고객에게 무료로 개방한지 1주일 만에 타사 가입자 43만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월 이용료 부담 없이 2만건 수준에 그쳤던 타사 가입자들의 T맵 사용이 19일 이후 일

평균 14만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용자는 43만이다. SK텔레콤은 다른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의 주간 사용자 규모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150만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사 가입자들의 T맵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시

## 네이버, 2분기 매출 1조 넘을까

연결기준 매출 컨센서스 전년 비 25.89% ↑ 9830억

이같은 증권가의 전망은 라인 성장세에 기인한다. 네이버도 광고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라인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4%(3195억원), 특히 광고 매출은 101.1%(1117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메리츠종합증권)까지 나온다. 라인은 신규 상품인 타임라인 광고 매출(지난 3월 유료화)이 2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전체 광고매출 증가가 점쳐진다. 지난 5월 운영형광과 플랫폼 HUKF 도입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과 추가 광고주 확보로 하반기부터 타임라인 광고매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라인이 뉴스 콘텐츠 기반 라인 뉴스, 동영상 광고 탑재가 가능한 라인 라이브 등 모바일 광고상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는 것도 광고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증권가는 라인의 장기성장을 점치는 모양새다. 게임, 스티커 매출이 꾸준하고 고성장 중인 광고와 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 O2O서비스영역에서 장기성장을 기대할 수 있

다(유안타증권)는 것이다. 네이버 국내사업도 2분기 광고성수기 효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지난해 네이버 매출의 70% 이상이 광고 부문에서 발생했다. 광고 매출은 2분기 성수기 진입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메리츠종합증권은 네이버 2분기 광고(검색, 디스플레이) 매출을 28.7% 증가한 7191억원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각각 22.7%와 16.7% 증가한 5198억원과 791억원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내 모바일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내 모바일 매출 비중이 각각 48%와 39%로 확대돼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시

네이버가 2분기에 매출 1조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분석한 네이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컨센서스(실적 예상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5.89% 증가한 9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682억원으로 60.42%, 당기순이익은 1848억원으로 48.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발표를 하루 앞둔 네이버는 1분기 9373억원으로 분기 매출 9000억원을 돌파한 후 2분기 연속 9000억원대 매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네이버가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깜짝’ 실적이 나올지 여부다. 메리츠종합증권은 2분기 매출 1조187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